

광주 올 외자유치 고작 700만달러

전국 꼴찌, 전남은 1억 900만달러 9위...71% 수도권 집중

외국인들의 광주지역 투자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규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광주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액(도착 기준)이 700만달러(10건)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은 1억900만달러(21건)로 9번째 순위였다.

광주지역의 외국인 투자 실적은 지난 2010년 2000만달러(21건)에서 지난해 7800만달러(18건)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해 9월말(1억607만달러) 대비 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진태 광주시 투자진흥국장장은 "외국인투자는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만을 가지고 따지기는 곤란하다"면서 "홍콩 LED조명업체 1700만달러, 미국 태양전지업체의 공동외국인투자지역 생산공장 착공 등이 예정돼 있어 연말이 되면 투자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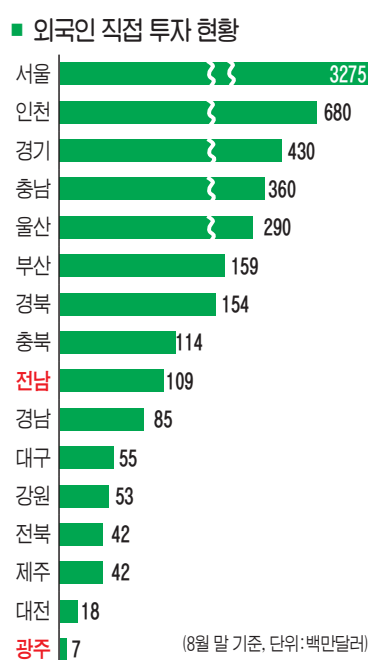
올들어 8월까지 국가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61억5700만달러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투자(65억5500만달러) 규모에 근접, 연말이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중 71.2%인 43억8500만달러가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 출현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24.2%인 14억8800만달러를 유치하는데 그쳤다. 아

직 투자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금액은 2억8500만달러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32억7500만달러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6억800만달러), 경기(4억3000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3억6000만달러), 울산(2억9000만달러), 부산(1억5900만달러), 경북(1억5400만달러), 충북(1억1400만달러), 전남(1억900만달러)이 1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상규 의원은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재벌 문어발 확장 심하네 영위업종 10년새 44% 늘어

국내 10대 재벌이 영위하는 업종의 수가 지난 10년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오너가 있는 10대 재벌의 영위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기준으로 2001년 39개에서 지난해 말 56개로 10년만에 43.5%(17개) 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6개 업종 가운데 73.4%에서 재벌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셈이다. 업종수가 증가한 만큼 이들 재벌의 계열회사 수도 같은 기간 303

개에서 592개로 95.4% 불어났다. 삼성그룹의 영위업종은 2001년 20개에서 2011년 26개로 6곳 늘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10개에서 21개로 증가했다. SK그룹이 20개에서 30개로, LG 그룹이 18개에서 23개로, 롯데그룹이 16개에서 25개로 사업 영역을 각각 확장했다.

현대중공업은 2001년 3개 업종에서 15곳으로 업종이 5배로 급증했다. 10대 재벌이 2001년에는 영위하지 않다가 새로 확장한 사업분야는 제조업 분야에서 의복·액세서리·모피(삼성, 롯데), 가방·신발

(GS), 가구(현대차) 등이다. 2001년에는 전혀 재벌의 사업 영역이 아니었던 음식점·주점업종에도 2011년말 현재 삼성그룹(보나비), 롯데그룹(블리스), GS그룹(상락푸드), 두산그룹(SRS코리아)이 진출했다.

올들어 삼성, 롯데 등 일부그룹은 음식점 분야에서 철수했다. 76개 업종 중 2011년 현재 10대 재벌이 모두 진출한 분야는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부문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을 비롯해 리조트, 레저시설개발 회사 등을 적어도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철 옛말”...9월 집값 8년만에 하락

8월보다 0.2% 떨어져...소형주택도 내림세로

가을 이사철의 시작인 9월 전국 집값이 8년만에 하강곡선을 그렸다. 취득세 감면 정책의 적용 시기가 미뤄진 탓에 불황에도 나홀로 강세를 보이던 소형주택 가격마저 내림세로 돌아섰고, 전셋값 오름폭이 예년보다는 작았다.

3일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8월보다 0.2% 떨어졌다.

9월 주택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4년 9월 -0.2% 이후 처음이다. 보통 9월은 가을 이사수요의 움직임으로 여름철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지만 올해는 더 침체된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 조사가 시작된 1986년 이후 27년 동안의 9월 주택가격 장기 평균 변동률은 0.6%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나란히 0.4%씩 내린 가운데 대전, 강원도, 경상남도(이상 -0.2%), 부산(-0.1%) 등 지방으로도 하락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충남처럼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혜택을 받은 지역이나 경북같이 주택공급 부족이 심한 지역에서는 집값이 0.5% 이상 올랐다.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실수요자들의 선호로 가격을 유지하던 소형주택 가격도 올해 들어 처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62.8㎡ 미만의 소형주택은 4월까지 매달 소폭 오르다 5~8월 석달 내리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9월에는 0.1% 하락했다.

대형주택(전용면적 95.9㎡ 이상)과 중형주택(62.8~95.9㎡)은 각각 0.4%, 0.3% 떨어져 전월보다 낙폭이 0.1%포인트씩 커졌다.

전세시세는 전국 0.3%, 수도권 0.4%(서울 0.4%) 각각 올라 매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27년 동안의 9월 장기평균 변동률 1.1%(서울 1.4%)보다는 상승률이 낮았다.

취득세 감면의 시행시기가 확정됨으로써 이달부터는 거래가 풀릴 전망이지만 가격이 크게 오르는 어려움 것으로 박 집값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중소 대졸 신입 절반 1년내 퇴사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절반가량이 1년을 채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92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12년 신입·경력사원 채용실태 특징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입사원 중 1년 후 회사에 잔류한 사원은 52.0%에 그쳤다. 대기업 신입사원 중에는 85.7%가 남은 것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신입사원 조기 퇴사 이유로 '조직적응 실패'(43.1%), '급여·복지후생에 대한 불만'(23.4%), '근무지와 환경에 대한 불

만'(14.2%) 등을 꼽았다. 대기업은 '공무원 시험·진학 준비'(40.6%), '급여·복지후생 불만'(15.7%) 등을 사원들의 퇴사 이유로 들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이 업무능력으로 평가한 적정 임금보다 평균 10.6%를 더 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신입사원 업무 수행 만족도 조사는 100점 만점에 평균 77.9점으로 집계돼 2년전 79.0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상사들이 신입사원에게 느끼는 불만으로는 '일에 대한 열정 부족'(41.8%), '기업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 교육 수준'(33.6%)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연합뉴스



LG PLS 신기술제품 인증 LG전자의 PLS(Plasma Lighting System) 조명 전 제품이 기술표준인증으로부터 NEP(New Excellent Product, 신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내년 국민주택운용금액 12% 늘려

내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금액이 올해보다 12% 늘어 41조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에 올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총 7조6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예산은 총 41조8000억원으로 올

해 예산(37조2000억원)에 비해 12.4%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년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건설물량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해 규모를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총 7조6천500억원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자금으로 배정됐다. 이는 올해 구입·전세자금 대출금액 5조8800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1조5000억원 제외)에 비해 30%(1조7700억원)나 증가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영구임대주택 입주, 광주 11개월 전남 24개월 대기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공공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2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은 11개월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영구임대주택 대기 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광주지역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는 3902명, 전남은 3951명이다. 하지만 임대주택 수는 각각 1만420가구, 5001가구로 대기자보다 크게 부족해 입주를 위해서는 광주의 경우 평균 11개월, 전남은 24개월 기다려야 한다.

이는 서울지역 대기기간인 9개월보다 광주는 2개월, 전남은 무려 1년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대기기간이 긴 지역은 인천으로 56개월로 나타났

다. 이어 경기 54개월, 충남 44개월, 제주 40개월, 강원 29개월 등의 순이다.

박상은 의원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힘들어진다면 서민생활이 불안해진다"며 "공공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공공주택의 분양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가슴 뛰는 삶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후불제여행을 경험해보자.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산악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갈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① 후불제여행은 매일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일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②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③ 압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④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⑤ 만가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하신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 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잔금적립후 계약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민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알바,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자본 무경험,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없음)

※ 고객의 회비는 공정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지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

10월 3일 수요일 OPEN

총장로 1가 입구 안산빌딩 8F

6기버너 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버하우스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점심 ₩14,900
-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 ₩18,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30~PM 10:00시

예약문의 226-0003

주차안내 : ● 승용차 이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안산 1주차장)
● 승합차 이용시-안산 2주차장 이용(안산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